서사영화 『Quo Vadis』와 『El Cid』의 라이트모티프 특징 분석

The Study of Leitmotif Characters in the Epic Movie, 『Quo Vadis』 and 『El Cid』

권 민 서, 이 승 연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MinSeo-Lèa Kwon, Seungyon-Seny Lee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SangMyung Univ.

요약

영화에서 당시 시대 문화를 반영하여 민속적 색채를 어떻게 나타내었는지 분석한다. 이는 두 영화의 배경인 로마와 스페인의 서사를 확인함과 동시에 테마를 작곡할 때에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영화 『Quo Vadis』와 『El Cid』에 등장하는 음악의 성격과 시대 배경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여 서사 영화에 사용된 멜로디 작곡법을 증명한다.

I. 서론

두 영화 『Quo Vadis, 1951』와 『El Cid, 1961』의 음악 감독인 미클로스 로자(Miklós Rózsa)는 서사를 표현하기 위해 시대 배경을 참고하여 영화의 내재된 메세지를 인물과 문화적 역할에 접목시켜 테마를 부여했다. 라이트모티프(Leitmotif)를 활용하여 로마와 스페인의 민속적 색채를 멜로디와 합치되어 영상과 음악의 공생관계를 이룬다.

1. 서사 영화(敍事映畵)

서사영화는 장대한 스케일로 인간 드라마를 그리는 것에 중점을 둔 영화의 장르이다. 특히 『Quo Vadis』와 『El Cid』는 내레이션(Narration)을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시대배경의 이해를 돕고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기능의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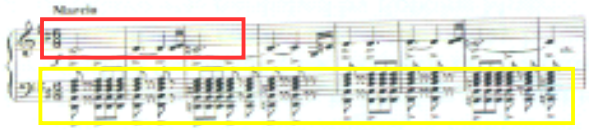
1.1 라이트모티프

영화음악은 영화의 내러티브(Narrative)와 연계하여 극중 인물, 상황 심리상태 등을 시각-이미지가 아닌 청각-이미지로 반영하여 관객의 감성을 자극한다.[1] 특히, 멜로디가 가장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인물, 사물, 문화 등을 반영하여 테마로 나타낸다. 라이트모티프를 최초 사용한 작곡가는 바그너이며 클래식에서 대중음악까지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1.2 영화 『Quo Vadis』 작품 설명 및 주요 테마

영화 『Quo Vadis』의 뜻은 'Quo(어디에), Vadis(가십니까?) Domine(주여)'라는 뜻을 갖으며, 1896년 폴란드의 노벨상 수상작가인 헨리크 시엔키에비치(Henryk Sienkiewicz)가 발표한 장편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당시 배경은 예수의 죽음 이후 서기 64년 여름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이며 통치하던 왕은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 네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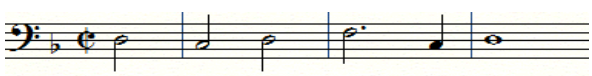
악보 1은 영화 『Quo Vadis』의 주인공이자 영웅 역할을 맡은 마커스 테마로서. 그는 영화에서 거만한 모습으로 당시 로마의 모습을 대변한다. '신은 인간이 선택한다'는 로마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커스는 리지아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겪으면서 사랑의 의미를 알아간다. 이 때 리지아의 테마는 사랑의 라이트 모티브로 연결하는 구성을 보인다.



〈악보 1. 마커스 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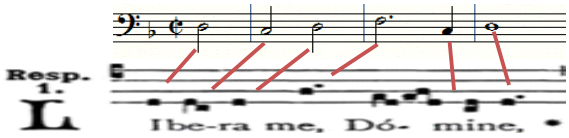
빨간색의 긴 음가를 사용한 선율은 주인공의 강직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란색 표기의 금관악기 연주는 투티(Tutti) 방식의 화성 진행으로 팡파레와 같은 진취적 성격을 묘사한다.

악보2는 영화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주요 멜로디이다. 이 시대에 문헌, 그림, 조각 등이 다량 보존되었지만 고전 음악은 기록은 많지 않다. 따라서 미클로스 로자는 영화 『Quo Vadis』의 주요 테마곡을 성가곡에서 그 모태를 잡았고, 다양한 합창곡을 선보인다.



〈악보2. Quo Vadis Domine〉

이 멜로디는 악보 3과 같이 그레고리안(Gregorian) 성가 중 "Libera me Domine" 키리에(Kyrie)를 참고하여 작곡된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3. Libera me Domine〉

'Libera me Dómine'는 '주님, 저를 구하소서' 라는 뜻으로, 영화는 종교를 탄압하려는 네로 황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형에 처해질 때에도 찬송가를 부르며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교인들을 그린다.

영화 『Quo Vadis』의 테마곡은 영화가 시작되기 전과 후에 합창으로 음악적 연출을 구성하는데, 이것은 미클로스 로자가 영화에 담겨진 전체 의미를 테마곡을 같은 곡으로 선보이면서 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다. 영화는 영상의 시점과 동시에 청각적 관점(청점)으로 내러티브를 유도하고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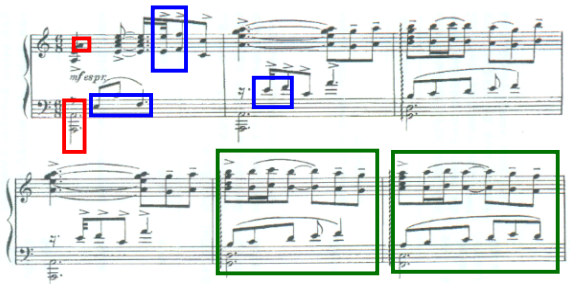
1.3 영화 『El Cid』 작품 설명 및 주요 테마

스페인어인 ' 『El Cid』'는 'The Lord'라는 영문의 뜻으로, 프레드릭 M. 프랭크(Fredric M. Frank)의 원작과 필립 요르단(Philip Yordan)의 각본으로 각색되었다. 1080년 스페인을 배경으로 기독교와 무어인들의 전쟁을 기리고 있으며 주인공인 로드리고 장군 엘 씨드로 스페인의 영웅을 그린다.

아래 악보 4는 『El Cid』의 오프닝 곡이며, 악보 5는 주인공 로드리고의 테마이다. 두 테마의 공통점은 스페인 대표 리듬 패턴인 플라멩코의 3박자 계열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3박 계통의 리듬은 3박에서 2박으로 바뀌는 헤미올라(Hemiola)[2] 리듬을 구성하고 있으며 음악이 연주될 때에 강세가 뒤로 밀리게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플라멩코의 느낌을 더욱 강하게 보여준다.

〈악보 4. 엘 씨드 오프닝 테마 〉

A 프리지안(Phrygian)을 나타내어 민속적 색채를 표현하고, 파란색 표기의 B♭의 등장은 빨간색 표기의 A음에서 도착한다. 특히 오프닝 테마는 주황색 표기의 셋잇단음표와 꾸밈음과 같은 플라멩코의 음악적 특징을 사용하여 스페인이 배경인 영화임을 그린다. 또한 가사에서도 한 음절에 여러 꾸밈음이 장식되어 노래하는 멜리스마 형식을 취하는데, 대체로 이웃음(Neighbor tone)으로 장식하는 빠른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캐스터네츠를 사용하고 프리지안을 사용하는 것이 이 영화의 특징으로 선율을 리듬과 꾸밈음으로 나타내고 반복 사용함으로 관객들에게 스페인 특유의 테마를 역할적 이미지로서 각인시킨다.



〈악보 5. 로드리고 테마1〉

악보 5는 빨간색 표기인 중심음 A가 에이올리안을 사용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단2도 관계인 파란색 표기 E음과 F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강박에 F음이 강조되어 프리지안의 캐릭터음인 ♭2의 활용을 볼 수 있다. 악보 5는 프리지안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악보 4와 같이 멜리스마적 요소를 띄고 있다. 로드리고 테마는 가사가 없는 음악이지만 초록색 표기와 같이 동형진행으로 리듬 패턴을 반복하여 주요 멜로디를 강조한다.

Ⅱ. 결론

미클로스 로자는 영화 『Quo Vadis』의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 교회에서 사용되던 그레고리안 성가곡을 참고하여 시대를 표현하였고,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리듬과 악기를 이용하였다. 『El Cid』를 표현하기 위해서 스페인의 대표적인 3박자 계열의 리듬, 플라멩코에 사용되는 악기를 부분 활용하여 민속적인 음악을 재현함으로서 시대상황을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음악은 영상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토리만으로는 부족한 설명을 보완해주는 기능으로 쓰인다.[3] 특히 서사영화에서 사용하는 음악의 관점은 세계관을 반영하여 영상에서의 역할과 배경을 음악으로 직접적인 연결을 이루고 있다.

두 영화의 음악감독인 미클로스 로자는 장면과의 조합을 위하여 사건의 전개 및 진행과 전체적인 내용을 테마음악으로 유추할 수 있다.[4] 서사 영화에서 음악은 시대배경과 문화를 반영하여 영화에 내재된 의미를 설명하는 역할과 영화 자체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독립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조화림, 김 건, "영화에서 음악의 역할",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18집, pp.1-18, 2006.
[2] 강희정, "팔랴의 피아노 음악에 나타난 민속 어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98
[3] 구경은, "영화의 사운드로서의 음악" 서양음악학 제 9-2 통권 11호, pp. 51-76, 2006.
[4] 최유미, "범죄영화 속 음악적 전개에 따른 내러티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pp48-56, 2014